



제목	이란인의 식관습과 문화
발행언어	한국어
발행처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 구소(역사문화연구 7)
발행일	1997. 2. 28.
저자	김영연
출판국가	대한민국
페이지수	113-138
ISBN 또는 ISSN	1598-6454

### 내용 요약

이란의 문화는 서기력 7세기 이슬람교가 수용되면서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다시 말해 전통적인 양식에 이슬람적인 문화가 가미된 종교와 생활이 하나로 연계된 이슬람은 이란인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까지 영향을 끼쳐 사람들로 하여금 종교가 규제하거나 권장하는 음식과 구체적인 식사 규범을 받아들이도록 했다. 그러나 사회가 발달하고 국제화되면서 이란도 서양의 음식문화가 들어와 도시의 젊은 세대들의 식관습은 우리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Fast Food인 햄버거, 피자, 샌드위치를 선호하는 문화로 바뀌고 있다. 그 반면 가정에서는 전통음식으로 상차림을 하여 과거의 식문화를 그대로 지켜가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란의 음식을 주식, 부식, 후식을 나누어 소개하고, 이란의 식사체계 역시 취식횟수와 식사자세, 먹는 방식과 식사예절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한편, 명절과 관련된 음식과 행사에 대해 기술한다.

이란의 식문화는 나뉘는 미로 평할 수 있다. 축제일과 행사 때의 음식은 종교의 의미를 함축한 관대와 자선을 시사하고 있다. 또 음식은 신이 내려주신 축복으로 해석하여 생명 연장의 공급원일 뿐만 아니라 인간 관계의 도리를 지키는 매개물로 생각하고 있다.